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關한 考察

尹暢烈*

I. 緒 論

論者は“三陰三陽에 관한 研究”¹⁾에서 四象의 太陽, 少陰, 少陽, 太陰과 三陰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은 비록 용어를 함께 쓰는 것이 있지만 陰陽의 二次分化인 四象과 六氣의 標氣로서의 三陰三陽은 차원을 달리하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兩者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三陰三陽은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에 대한 標氣로서 始中終과 本中末을 갖추고 있는 事物化生의 개념으로서 생명과 陽氣가 發生, 成長, 完成, 統一되는 一週期의 變化상태를 대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三陰三陽이 六氣에 대한 標氣의 名稱과, 傷寒의 六經分證, 雜病과 脈象의 分類에도 採用되고 있음을 內經과 難經 및 歷代 醫書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먼저의 研究를 이어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內經에서 提示된 이래 後代의 많은 의가들이 그 理論을 응용하였으며, 특히 張隱庵, 柯琴, 陳修園 등은 傷寒論의 辨證과 治療에 널리 활용하여 後代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아직도 諸家의 설이 紛紛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論者は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해 黃帝內經으로부터 歷代醫書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考察整理하여 斯界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開闔樞의 由來

開闔樞에 대한 理論이 처음으로 소개되어 있는 文獻은 素問의 第六 陰陽離合論과 靈樞의 第五 根結篇이다.

陰陽離合論을 보면 黃帝가 三陰三陽의 離合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岐伯은 먼저 三陰三陽의 關係를 말하고 이어 三陽經脈의 根起穴을 말하고 있으며 끝으로 “是故로 三陽之離合也는 太陽爲開오 陽明爲闔이오 少陽爲樞라 三經者는 不得相失也니 搏而勿孚를 命曰一陽이니이다”라 답하고 있다. 다시 黃帝가 三陰을 묻자 岐伯은 역시 三陰經脈의 根起穴을 이야기하고 나서 “是故로 三陰之離合也는 太陰爲開오 厥陰爲闔이오 少陰爲樞라 三經者는 不得相失也니 搏而勿沈을 命曰一陰이니이다”²⁾라 답하고 있다.

內經은 陰陽의 對立과 調和 및 協助과 統一의 關係를 중시하고 있다. 위의 內容은 十二經脈이 三陰三陽으로 나뉘어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은 陰陽의 離合에 不過하다는 內容이다.

다시 말해 經脈의 作用은 三陽經脈과 三陰經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離이다. 그러나 陰과 陽은 서로 協助하여 統一된 하나의 作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合이다. 이를 本文에서는 陽予之正이오 陰爲之主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陰陽은 각기 職責이 있는데 陽은 作用의 주체가 되고 陰은 물질의 기초를 이룬다는 뜻이다. 素問今釋은 “陽爲萬物生長의 動力이오 陰爲萬物生長의 基礎”³⁾라 했고, 王冰은 “陽施正氣에 萬物方生하고 陰爲主持에 群形乃立이라”⁴⁾ 하였으며 素問校釋에서는 “正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1.

3) 王琦 等,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39.

4) 郭霽春 主篇, 黃帝內經素問校注(上), 北京,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대전대학교 韓醫學연구소 논문집 Vol.4, No.2, Feb. 1966.

은 主의 뜻으로 陰爲之主의 主와 같은 뜻으로 互詞⁵⁾라 하였다.

또 三陽의 離合은 少陽, 陽明, 太陽脈이 각기 나누어지는 것이 離이나 그 作用을 相互協助 不得相失하는 것이 合이며, 三陰의 經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바로 이 離의 과정에서 開闔樞의 각기 다른 기능이 있게 된다는 內容이다. 이상의 內容을 다시 說明해 보면 十二經脈은 三陰三陽으로 나뉘어지고 本篇에서 “外者爲陽 內者爲陰”이라 하였듯이 陽經은 體表에, 陰經은 그 裏面에 分布한다. 그리고 三陰三陽經은 다시 각각 開闔樞의 구별이 있는데 그렇다고하여 三者가 각자 독립적으로 作用하는 것이 아니고 相互協助하는 하나의 統一體가 된다. 그러므로 離하면 陰陽이 각각 나뉘어져서 三陰三陽이 되고 合하면 ‘一陰’, ‘一陽’이 되어 서로 不得相失하게 된다는 것이다. 六經의 協助關係는 動하면 각각 職責이 나뉘어지고 靜하면 일체가 되니 張隱庵이 말한 “開闔者는 如戶之扉로 樞者는 扉之轉牡也나 舍樞면 不能開闔하고 舍開闔이면 不能轉樞라 是以로 三經者는 不得相失也라⁶⁾한 內容과 일치한다. 즉 開闔樞는 三陰三陽 經脈의 協助統一의 重要성과 六經의 各各의 職能 및 이들 사이의 밀접한 關係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靈樞의 根結篇에서도 陰陽離合論과 마찬가지로 十二經脈의 根起와 歸結을 이야기하면서 開闔樞를 言及하는 것은 同一하나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病證과 治療法을 서술하는 점이 陰陽離合論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內容은 뒷면에서 자세히 서술될 것이다.

2. 開闔樞는 關闔樞의 잘못이다.

지금의 素問과 靈樞에는 모두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및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太素와 기

타 內經의 다른편의 內容 및 內容上으로 보아 開闔樞는 關闔樞의 오류가 분명한 듯 하다.

첫째, 太素에 關闔樞로 되어 있다.

太素는 隋代의 楊上善이 편찬한 이후 宋의 南渡後에 亡失되어 전하여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江戶 말기에 일본의 京都 仁和寺에서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30권중 23권이 발견되었고 발견된 23권 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았다. 이를 光緒 中葉에 淸의 楊惺忪가 영사하여 중국으로 가져갔고 1897년 袁昶이 출간하였는데 이를 袁昶本이라 하며 교정이 상세하지 않고 잘못된 곳이 많다. 이 袁昶本의 卷五 陰陽合에는 關闔樞가 아닌 開闔樞로 되어 있다⁷⁾.

그 후 이 袁昶本을 蕭延平이 校正하여 1924년에 책을 내었고, 다시 1955년에 人民衛生出版社에서 蕭延平本을 영인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開闔樞가 아닌 關闔樞로 되어 있으며 蕭延平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太陽爲關이니 關者는 《甲乙經》 《素問》 《靈樞》에 均作開라 日本抄本에 均作關하니 乃 關字의 省文이라 玩楊注에 門有三義하니 一者는 門關이니 主禁者也라하니 主禁之義는 關字爲長이니 若開字면 則說不去矣라 再考《靈樞》根結篇과 及《甲乙經》經脈根結篇 於 于太陽爲開之上에 均有 ‘不知根結 五臟六腑折關敗樞開闔而走’之文하고 本書卷十經脈根結이 與《靈樞》《甲乙》로 同하니 則是는 前以關樞闔三者로 并舉하고 後復以爲闔爲樞로 爲分析言之니 足證明後之爲關의 關字는 卽前之折關의 關字無疑矣라 下 太陰爲關은 與此同矣니 不再舉라 再按嘉祐本 《素問》新校正에 云 ‘《丘墟》太陽爲關’이라하여 作關라니⁸⁾

5)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上), 서울, 一中社, p.99.

6) 張隱庵, 馬壽, 張馬合註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75, p.65.

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 44-45.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07.

둘째, 앞에서도 言及이 되었지만 根結篇에 “不知根結이면 五臟六腑가 折關敗樞開闔而走하여 陰陽大失이니 不可復取라”⁹⁾고 하였다. 여기서 折關敗樞開闔은 關, 樞, 闔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內容이 명확해진다. 또 靈樞 本藏篇四十八에서 “衛氣者는 所以溫分肉하며 充皮膚하며 肥腠理하며 司開闔者也”¹⁰⁾라 하였다. 이 部分은 太素卷六, 五臟命分에도 나오는데 袁昶本에는 위와 똑같이 司開闔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蕭延平本에는 司關闔으로 되어 있고, 蕭는 關字가 원래의 鈔本에는 開으로 되어 있는데, 開은 關字의 省文이라고 하였다. 分肉, 皮部, 腠理가 名詞이므로 關闔도 名詞되어야 하므로 開字보다는 關字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素問 皮部論 第五十六篇에 “太陽之陽을 名曰關樞”¹¹⁾라 하고, “太陰之陰을 名曰關蟄”¹²⁾이라 한 말이 보인다. 구체적인 內容은 다음 部分에서 살펴 보겠지만 太陽과 太陰의 絡脈의 명칭이 모두 開가 아닌 關으로 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內容을 종합해 볼 때 後世의 많은 醫家들이 비록 開闔樞로 통칭하면서 醫學理論을 전개했지만 關闔樞의 잘못이었음이 확실하며 이러한 誤謬는 王冰本 內經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思料된다.

3. 關闔樞의 개념

楊上善은 三陰三陽의 關闔樞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註釋하고 있다.

“三陽離合은 爲關闔樞하여 以營於身也라 夫爲門者는 具有三義하니 一者는 門關이니 主禁者也니 膀胱足太陽脈은 主禁津液하여 及於毛孔故로 爲關也라 二者는 門闔이니 謂是門扉也니 主關閉也니 胃足陽明脈은 令眞氣止息하여 復無留滯故로 名爲闔也라 三者는 門樞이니 主轉動者也니 膽足少陽脈은 主筋하며 網維諸骨하여 令其轉動故로 爲樞也라

三陽이 爲外門이오 三陰이 爲內門이라 內門이

亦有三者하니 一者는 門關이니 主禁者也니 脾藏足太陰脈은 主禁水穀之氣하여 輸納於中하여 不失故로 爲關也라 二者는 門闔이니 主關閉者也니 肝藏足厥陰脈은 主守神氣出入과 通塞悲樂故로 爲闔也라 三者는 門樞니 主動轉也니 腎藏足少陰脈은 主行津液하여 通諸經脈故로 爲樞者也라”¹³⁾

위의 內容으로 볼 때 關은 문을 닫는 문의 빗장(門栓)이 되고, 闔은 문짝(門闔, 門扇, 門扉, 門板은 모두 문짝의 의미이다)이 되고 樞는 문의 지도리(門軸)가 되며, 三陽經脈은 外門이 되고 三陰經脈은 內門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皮部論에 대한 內容을 소개하고자 한다. 皮部論은 十二經脈이 皮膚上에 있는 部分을 說明하고 있다. 특히 三陽經과 三陰經의 絡脈의 명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關闔樞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太陽之陽을 名曰關樞라 하였다.

吳崑은 “關은 固衛也라 少陽爲樞니 轉布陽氣하고 太陽則約束而固衛其轉布之陽이라 故로 曰關樞라”¹⁴⁾ 하였다.

關은 가로지르는 나무로 문을 닫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關樞의 뜻은 太陽이 一身之表를 주관하니 衛外而爲固하는 기능을 갖추어 少陽의 樞轉出入之機를 約束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陽明之陽을 名曰害蜚(합비)라 하였다.

丹波元簡은 素問識에서 “蓋害盍闔은 古通用이니 爾雅釋宮에 闔을 謂之扉라하고 疏에 闔은 扇也라하며 說文에 曰闔은 門扉也며 一曰閉也라하니라 蜚音扉니 害蜚는 卽是闔扉니 門扇之謂라 離合眞邪論에 云陽明爲闔이라하니 義相通이라”¹⁵⁾ 하였

9) 洪元植, 上揭書, p.218.

10) 上同, p.288.

11) 上同, p.288.

12) 上同, p.106.

1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44-45.

14) 吳崑, 吳注黃帝內經素問, 서울, 金泳出版社, 1980, p.441.

8) 黃帝內經素問校釋, p.105.

다. 이를 통해 보면 害蟲은 곧 閨扉로 문짝의 뜻이라 하겠다.

少陽之陽을 名曰樞持라 하였다.

吳崑은 “樞는 樞軸也니 所謂少陽爲樞 是也라 持는 把持也니 蓋少陽은 居於表裏之間하니 猶持樞軸也라”¹⁶⁾ 하였고, 張介賓은 “樞는 樞機也호 持는 主持也라 少陽은 居三陽表裏之間하니 如樞之運而持其出入之機라 故로 曰樞持라”¹⁷⁾ 하였다. 丹波元簡은 “甲乙經에 樞杼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하여 樞杼는 곧 樞軸이라”¹⁸⁾ 하였는데, 樞軸은 지도리와 수레의 굴대이니 樞와 같은 의미로서 少陽의 陽氣를 樞轉하는 作用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太陰之陰을 名曰關蟄이라 하였다.

王冰은 “關閉蟄類라야 使順行藏이라”¹⁹⁾ 하였고, 張介賓은 “關者는 固于外호 蟄者는 伏于中이니 陰主藏而太陰衛之故로 曰關蟄이라”고 하였다.

또 丹波元簡은 “甲乙에 蟄作執하니 蓋蟄은 是槩(기둥얼)之訛라 槩과 闌(문지방얼)은 同하니 穀梁傳昭八年에 以葛覆質로 以爲槩이라한데 范寧註에 槩은 門中臬(말뚝얼, 闌과 同字)이라하고 釋文에 槩은 門樞(말뚝길, 문지방길)也라하니라 爾雅에 樞는 謂之闌이라하고 周禮 考工記 鄭註에 闌은 故作槩하니 乃門中樞也라하니라 關槩者는 取義於門中之樞이니 左右之扉가 所合處歟라”라고 하였다. 丹波元簡의 說明이 옳은 듯 한데 太陰은 閉藏하는 作用이 있어 陰氣가 外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說明하는 말이라 하겠다.

心主之陰을 名曰害肩이라 하였다.

心主는 手厥陰經脈을 주관한다. 丹波元簡은 “蓋肩은 榑(두공계, 두공견)同하니 榑也라 說文에 榑은 屋櫨(두공로, 기둥위의 方木, 屋櫨)也라하고 徐錯云 柱上橫木承棟者니 橫之似筭(비너 계)也라하니라 …… 集韻에 榑은 或作榑이라하니 閨榑者는 謂閨扉上容樞之榑與라”²⁰⁾라 하였다.

少陰之陰을 名曰樞樞라 하였다.

丹波元簡은 역대의 모든 註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이르기를 “新校正引甲乙에 作樞(나

무이름누, 或音연)하니 似是라 樞는 或作榑(紅花연)라고 又作榑(두공이, 기둥위의 방형의 나무, 대들보를 받침, 屋櫨)라 爾雅에 榑를 謂之窰(동자기둥질, 들보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 柱頭斗拱, 說文作榑, 通作節)이라한데 註에 卽櫨也라하고 疏에 謂斗拱也라하니라 蒼頡篇에 云櫨拱은 柱上木也라하니 柱上承斗之曲木也라 少陰之陰은 取名于樞上柱頭之樞故로 曰樞樞與라”²¹⁾라 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종합하여 關闌樞의 內容을 살펴보면 關闌樞는 문을 이루는 세부분으로 문의 빗장, 문짝, 지도리를 의미한다. 三陽經脈은 外門이 되어 밖에서 相互協助하여 作用할 때는 하나의 陽이 되어 외부의 邪가 인체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체내로부터 精氣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호하는 作用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太陽經은 빗장이 되어 가장 외부에서 보호를 하고 陽明經은 내부에서 보호작용을 하며 少陽經은 중간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作用을 한다. 그리고 三陰經脈은 內門이 되어 역시 太陰經脈은 主禁의 作用을, 厥陰經脈은 主關閉의 作用을, 少陰經脈은 主轉動的 作用을 하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의 內容도 關闌樞의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소개한다. 素問 陰陽類論篇 第七十九에서는 “三陽爲經 二陽爲維 一陽爲游部”²²⁾란 內容이 있다. 여기서 三陽은 太陽을 뜻하고 二陽은 陽明을 뜻하며 一陽은 少陽을 의미한다. 張介賓은 註에서 “經은 大經也니 周身之脈은 惟足太陽이 爲巨라야 通巔下背하고 獨統陽分故로 曰經이라 維는 維絡也니 陽明은 上布頭面하고 下循胸腹하야 獨居三陰之中하야 維絡于前故로 曰

16) 吳崑, 上揭書, p.440.

17) 張介賓, 類經, 서울, 서원당, 1977, p.209.

18) 丹波元簡, 上揭書, p.250.

19) 郭霽春, 上揭書(下), p.665.

20) 上同, p.251.

21) 上同, p.251.

22) 洪元植, 上揭書, p.196.

15) 丹波元簡, 素問識(皇漢醫學叢書卷一), 서울, 廣法社, 1975, p.249.

維라 少陽은 在側하여 前行則會于陽明하고 後行則會于太陽하여 出入于二陽之間故로 曰遊部라”²³⁾하고 있다.

또 三陰에 대해 “三陰爲表 二陰爲裏 一陰至絶作朔晦却具合以正其理”²⁴⁾라 하였다.

張介賓은 註에서 “三陰은 太陰也라 太陰은 爲諸陰之表故로 曰三陰爲表라 按전대 陰陽離合論에 曰太陰爲開라하고 痿論에 曰肺主身之皮毛라하고 師傳篇에 曰肺爲之蓋로 脾者主爲衛라하니 是手足三陰은 皆可言表也라 …… 二陰은 少陰腎也라 腎屬水하고 其氣沈하며 其主骨故로 二陰爲裏라 …… 一陰은 厥陰也라 厥者는 盡也라 按전대 陰陽繫日月篇에 曰戊은 主右足之厥陰하고 亥는 主左足之厥陰하니 此는 兩陰交盡이라 故曰厥陰也라 夫厥陰之氣는 應在戊亥하니 六氣不幾於絶矣라 然이나 陰陽消長之道는 陰之盡也는 如月之晦하고 陽之生也는 如月之朔하니 旣晦而朔則絶而復生하니 此所謂一陰至絶作朔晦也라 由是而終始循環하여 氣數具合故로 得以正其造化之理矣라”²⁵⁾ 하였다.

또 同篇에서 “三陽爲父 二陽爲衛 一陽爲紀 三陰爲母 二陰爲雌 一陰爲獨使”²⁶⁾라 하였다. 父母에 대해 張介賓은 “太陽은 總領諸經하여 獨爲尊大故로 稱乎父로 太陰은 滋養諸經故로 稱爲母라”²⁷⁾ 하였다. 二陽爲衛에 대해 馬蒔는 “二陽者는 卽陽明也라 陽明은 爲表之維하여 捍衛諸部하니 所以爲衛也라”²⁸⁾ 하였다. 여기서 衛는 捍衛의 뜻으로 陽明經脈이 前을 維絡하여 諸經의 陽氣를 捍衛함을 지적한 것이다. 一陽爲紀에 대해 馬蒔는 “一陽者는 卽少陽也라 少陽은 爲表之遊部하여 布絡諸經하니 所以爲紀也라”²⁹⁾ 하였다. 여기서 紀는 會의 뜻으로 少陽이 二陽之間에 出入하면서 陽의 交會處가 됨을 밝히고 있다.

二陰爲雌와 一陰爲獨使에 대해 張介賓은 “少陰屬水하고 水能生物故로 曰雌나 亦上文二陰爲裏之義라 使者는 交通終始之謂나 陰盡陽生은 惟厥陰主之故로 爲獨使라”³⁰⁾ 하였다.

4. 開闔樞의 활용

앞에서 開闔樞가 아니라 關闔樞가 옳음을 고증하였지만 後世에 모두 開闔樞로 사용하였고, 關역시 가장 밖에 위치하여 開를 주관하며 病이 들면 開法등을 쓸 수 있어 의미가相通하며 後世에 開闔樞로 慣用하였으므로 以下에서는 開闔樞로 통칭한다.

(1) 開闔樞의 생리적인 특징

開闔樞를 위치적으로 구분할 때 開가 제일 淺表部에 위치하고 闔은 裏에 위치하며 樞는 半表半裏에 위치한다. 이에 대해 馬蒔는 “太陽者는 三陽也나 爲陽之表로 其義曰開라 陽明者는 二陽也나 爲陽之中이나 其義爲闔이라 少陽者는 一陽也나 爲陽之裏나 其義曰樞라 非樞則無所主로 非闔則無所入이오 非開則無所出이나 誠離之不能以無合也라”³¹⁾고 하였고, 三陰에 대해 “太陰者는 三陰也나 爲陰之外나 其義爲開라 厥陰者는 一陰也나 爲陰之盡이나 其義爲闔이라 少陰者는 二陰也나 爲陰之中이나 其義爲樞라 非樞則無所主이오 非闔則無所入이오 非開則無所出이나 誠離之不能無合也라”³²⁾라 하여 開闔樞를 三陽, 二陽, 一陽, 三陰, 二陰, 一陰의 순서에 따라論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陽明은 陽之中으로 闔이 되고, 少陽은 陽之裏로 樞가 된다고 본 점은 後世의 일반적인 說明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張介賓은 開闔樞를 위치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기능적인 說明까지를 겸하여 說明하고 있다.

“太陽이 爲開는 謂陽氣發于外나 爲三陽之表也
오

24) 洪元植, 上揭書, p.196.

25) 張介賓, 上揭書, p.276.

26) 洪元植, 上揭書, p.196.

27) 張介賓, 上揭書, p.278.

28) 馬蒔, 張隱庵, 張馬合註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75, p.738.

29) 馬蒔, 上揭書

30) 張介賓, 上揭書, p.278.

31) 馬蒔, 上揭書, p.66.

32) 上揭書, p.67.

23) 張介賓, 上揭書, p.276.

陽明이 爲闔은 謂陽氣畜于內니 爲三陽之裏也

少陽이 爲樞는 謂陽氣在表裏之間이니 可出入하다 如樞機也라

太陰이 爲開는 居陰分之表也오 厥陰이 爲闔은 居陰分之裏也오

少陰이 爲樞는 居陰分之中也라 開者는 主出하고 闔者는 主入하고 樞者는 主出入之間하니 亦與三陽之義로 同이라³³⁾고 하였다.

吳崑도 역시 위치와 기능을 함께 說明하고 있다.

“太陽在表하야 敷暢陽氣하니 謂之開오

陽明在裏하야 受納陽氣하니 謂之闔이오

少陽在于表裏之間하야 轉輸陽氣하야 猶樞軸焉하니 謂之樞라

太陰居中하야 敷布陰氣하니 爲之開요 厥陰謂之盡陰이니 受納絕陰之氣하니 謂之闔이오 少陰爲腎이니 精氣充滿하며 則脾職其開하고 肝職其闔이어나 腎氣不充하면 則開闔失常하니 是少陰이 爲樞軸也라³⁴⁾. 吳崑의 說은 비록 합리적이지만 三陰三陽의 開闔樞를 經脈의 기능이 아닌 臟腑의 機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研究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石壽棠은 醫原의 樞機論에서 開闔樞의 상호관계를 說明하고 있는데, 특히 樞의 作用을 強調하여 說明하고 있다.

“竊聞三陰三陽에 有樞機焉이라하니 樞者는 如門戶之樞니 乃陰陽開闔之轉機也라 內經樞機有二하니 一曰少陰爲樞요 一曰少陽爲樞라 陰之初生이 爲少陰이니 少陰은 稚陰也라 手少陰은 屬心하고 足少陰은 屬腎하니 心爲人身君主之官으로 神明所從出이오 腎爲陰陽互根之地로 精氣之本原이라 故로 少陰은 爲轉陽至陰之機竅니 陰之樞也라 由少陰而太陰하고 由太陰而厥陰하니 經曰太陰爲開오 厥陰爲闔이라하니 蓋太陰脾土는 得此樞而散精以升于上하고 太陰肺金은 得此樞而布精以降于下하야 能升能降故로 謂之開요 由是로 厥陰心包絡은 得此樞而陰血以生하고 厥陰肝木은 得此樞而陰血以藏하야 以生以藏故로 謂之闔이니 是太陰厥陰

之開闔이 皆少陰之樞所默運者也라 厥陰이 爲陰之極이오 陰極則陰生하야 而陰이 轉入于陽하나니 陽之初生이 爲少陽이요 少陽은 稚陽也라 手少陽은 屬三焦하고 足少陽은 屬膽하니 三焦는 具眞陽之火호대 其體虛潤하며 其氣氤氳이오 (焦는 熱也니 滿腔中熱氣布瀆하야 能通調水道也라 按컨대 三焦는 從右腎生出하고 心腎相通하니 三焦는 因與心包絡相通하야 而爲表裏라) 膽爲初春之木으로 其體軟嫩하며 其氣溫和라 故로 少陽은 爲轉陰至陽之機括이요 陽之樞也라 由少陽而太陽하고 由太陽而陽明하니 經曰 太陽爲開요 陽明爲闔이라하니 蓋太陽膀胱은 得此樞而水道通調하고 太陽小腸은 得此樞而食物變化하야 通調變化故로 謂之開요 由是로 陽明胃腑는 得此樞而陽氣含納하고 陽明大腸은 得此樞而陽氣收藏하야 含納收藏故로 謂之闔이니 是太陽陽明之開闔이 皆少陽之樞所默運者也라 陽明이 爲陽之極이오 陽極則陰生하야 而陽이 又轉入于陰하나니 然則少陰 少陽이 非陰陽出入開闔之樞機者哉아 若其樞一有不利면 則出入之機停하고 出入機停하면 則開闔之機廢하고 能開不能闔하면 則泄瀉諸病生하고 能闔不能開하면 則噎膈便閉諸病이 生하나라³⁵⁾. 石壽棠도 역시 開闔樞의 기능을 經脈이 아닌 臟腑로써 說明하고 있다.

新編黃帝內經綱目에서는 “開闔樞는 三陰三陽의 기능을 門戶에 비유한 것으로 三陽은 在表하야 形體를 主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중 太陽은 關이 되어 皮膚를 주관하고 陽明은 闔이 되어 肌肉을 주관하고 少陽은 樞가 되어 筋을 주관한다. 또 三陰은 在裏하야 精氣神을 藏하는 機能이 있는데 이 중 太陰은 關이 되어 穀氣의 運化를 司하고 厥陰은 闔이 되어 神氣의 蓄藏을 司하고 少陰은 樞가 되어 血氣의 出入을 司한다³⁶⁾고 하였다. 이 내용은 開闔樞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확

33) 張介賓, 上揭書, pp.205-206.

34) 吳崑, 上揭書, pp.65-67.

35) 石壽棠, 醫原, 江蘇科技出版社, 1983, pp.21-22.

36) 李今庸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144.

대시킬 수 있는 內容이라 사료된다.

三陰三陽의 經脈이 開闔樞에 따른 생리학적인 특징은 후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開闔樞의 病理的인 특징

靈樞 根結篇에서 “折關敗樞開闔而走^{하야} 陰陽大失^{하면} 不可復取^과”하여 開闔樞의 기능이 손상되면 正氣가 손상되고 陰陽의 균형이 깨어지면 治療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同篇에서 開闔樞의 기능상실에 따른 病變의 특징적인 발생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開(太陽)折則肉節瀆^{하야} 爲暴病起矣^라 故^로 暴病者^는 取之太陽^{호대} 視有餘不足^{이라} 瀆者^는 皮肉宛樞而弱也^라

(太陽의 기능이 손상되면 肉節이 瀆하는 病變이 발생하고 급성병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급성병은 太陽經을 治療하되, 虛實에 따라 補瀉를 해야 한다. 瀆이란 病은 皮膚와 肌肉이 緩慢해지고 마르고 쇠약해지는 것이다.)

闔(陽明)折則氣無所止息^{하야} 而痿疾起矣^라 故^로 痿疾者^는 取之陽明^{호대} 視有餘不足^{이라} 無所止息者^는 眞氣稽留^{하고} 邪氣居之也^라

(陽明의 기능이 손상되면 陽氣가 內臟에 들어가 머무르거나 쉬지 못하여 痿躄病이 생긴다. 그러므로 痿躄病이 생기면 陽明을 治療하되 虛實에 따라 補瀉를 해야 한다. 無所止息이란 말은 眞氣가 留滯되어 不行하고 邪氣가 侵入해 머무르는 것이다.)

樞(少陽)折則骨繇而不安於地^니 故^로 骨繇者^는 取之少陽^{호대} 視有餘不足^{이라} 骨繇者^는 節緩而不收也^라

(少陽의 기능이 손상되면 뼈가 動搖되어 땅에서 있기가 불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뼈가 흔들리는 자는 少陽을 治療하되 虛實에 따라 補瀉를 해야한다. 骨繇라는 것은 骨節이 弛緩되어 不收하고 動搖하는 것이다.)

開(太陰)折則倉廩無所輸^{라야} 膈洞^{하야} 膈洞者^는 取之太陰^{호대} 視有餘不足^{이라} 故^로 開折者^는 氣不足而生病也^라

(太陰의 기능이 손상되면 脾가 運化기능을 상실하여 穀氣를 轉輸하지 못하여 위로는 膈氣가 痞塞하고 아래로는 洞泄이 그치지 않는다. 膈塞과 洞泄病은 太陰 즉 脾經의 經穴을 治療하는데 虛實에 따라 補瀉를 행한다. 그러므로 太陰의 기능이 손상된 것은 脾氣가 不足해서 병이 생기게 된다. 참고: 太素와 甲乙經에는 마지막의 不足의 二字가 없다.)

闔(厥陰)折則氣絕而喜悲^{하니} 悲者^는 取之厥陰^{호대} 視有餘不足^{이라}

(厥陰의 기능이 손상되면 肝氣가 풀어져서 자주 슬퍼하니 슬퍼하는 자는 肝經의 穴位를 취하여 治療하되 虛實에 따라 補瀉를 행한다.)

樞(少陰)折則脈有所結而不通^{하니} 不通者^는 取之少陰^{호대} 視有餘不足^{이라} 有結者^는 皆取之不足^{37)이라}

(少陰의 機能이 손상되면 腎經의 脈氣가 結滯되어 不通하게 되니 脈氣가 不通하면 腎經의 穴位를 취하되 虛實에 따라 補瀉를 행한다. 무릇 經脈이 結滯不通하면 모두 위에서 기술한 방법을 취해 治療해야만 한다.)

石壽棠은 역시 醫原의 樞機論에서 少陰少陽의 樞의 不利로 인하여 생하는 病의 機轉과 治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病先天則從腎起^{하고} 病後天則從脾胃起^{하니} 脾胃病則土不生金而金敗^{하고} 金敗則水衰^{하고} 水衰則木枯^{하고} 木枯則火熾^{하고} 火熾則水益涸^{하고} 水涸則龍火起^{하고} 龍火起^{하야} 而風火 雷火 燥火 亦相繼而起^{하면} 則一身無非火矣^라 夫此火之來^는 總由于樞之不利^니 火即陽氣外越^{하야} 而不能依附于陰者也^라 若寒以降之^면 則火益熱而元氣亡矣^니 故^로 欲其樞之利^{인면} 非溫潤之 鹹柔之^면 不可^{하니} 法當滋腎之陰^{하며} 納腎之陽^{이니} 蓋腎은 爲水火互根之臟^{으로} 腎陰足而後에 水濟火^{하며} 腎陽固而後에 氣歸精也^오 法當養肝之血^{하며} 達膽之氣^니 蓋肝膽은 爲東方震巽之木^{이니} 木之陰液은 不可耗^며 木之生氣는 尤不可伐也^{니라} 知少陰少陽之爲樞^면 而治法을 可悟矣^{니라}”³⁸⁾

37) 洪元植, 上揭書, p.218.

朴一洪等은 註譯黃帝內經素問에서 三陽三陰의 開闔樞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凡陰陽脈은 有開闔故로 氣能出入이라 太陽爲 開故로 風寒이 皆從太陽經入하고 陽明爲闔故로 邪入胃則不再傳하고 少陽爲樞故로 風寒이 入少陽經則 風寒이 能出能入而 寒熱往來오 非但六氣之邪라 六氣之正도 亦如是하니 肺納天氣而 竅屬膀胱하니 清氣常入膀胱而 以充津液하며 胃納水穀而不出하고 主納熱不納寒하니 若寒入則 或吐或瀉하니 是逆也며 膽主中正而 實則怒하고 虛則驚하니 闔則爲實하고 開則爲虛야야 開闔任便하니 爲中正而 取決於十一藏也라”³⁹⁾

“陰經도 亦有開闔樞라 水穀入胃하면 太陰開而 納之하고 陽症傳陰에 太陰이 先受故로 曰太陰開也오 厥陰在中하니 以藏言之면 則 其位最奧야야 與膽爲合而 膽無上下竅故로 爲闔이오 以病言之면 則太陰爲開而常納故 腹滿하고 厥陰爲闔而不出納故로 舌卷囊縮이니 舌與囊은 皆爲筋之宗而 無伸張故로 爲卷縮也라 少陰在後하니 手少陰은 爲心而主火하고 足少陰은 爲腎而主水하니 水火常 升降야야 而爲既濟故로 少陰爲樞라 若三陰失序하면 則 太陰闔而勿開니 嘔吐脇痛臍脹發黃이오 厥陰開而勿闔이니 嘔吐瀉清이오 少陰開而勿樞니 嘔逆腹滿이라”⁴⁰⁾

일반적으로 邪氣가 三陽에 있으면 病이 表部에 있어 熱證 實證이 많고, 邪氣가 三陰에 있으면 病이 裏部에 있어, 寒證 虛證이 비교적 많다. 다시 三陽을 나누어보면 太陽은 六經의 울타리(藩籬)가 되므로 外邪가 처음 침입하면 제일 먼저 太陽이 영향을 받는다. 陽明은 裏를 주관하므로 邪熱이 入裏하면 邪熱이 熾盛하거나 胃家實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少陽은 半表半裏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邪氣가 침범하면 寒熱往來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三陰의 病機도 開闔樞의 각기 다른 생리적인 특징에 의해 서로 다른 病理變화와 症候가 나타나게 되므로 開闔樞에 대한 이해는 正邪의 消長과 疾病發展의

추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三陰三陽은 症候를 귀납하고 病機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3) 開闔樞의 진단 및 치료학적 응용

開闔樞理論은 正氣와 邪氣의 투쟁하는 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병의 傳變과 예후를 판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傷寒論에서의 六經傳變, 合病, 併病, 豫後의 좋고 나쁨 등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臟腑 經脈의 陰陽表裏關係와 生理機能 등의 기초위에서 臨床經驗을 配合하여 立論한 것이다. 대개 病邪가 陽에서 陰으로 들어가면 病이 심해지고 예후가 나쁘며, 病邪가 陰에서 陽으로 나오면 病이 가벼워지고 예후가 좋다.

開闔樞의 治療學的인 응용에 대해 살펴보면 太陽은 開를 主하니 邪氣가 太陽에 있으면 正盛邪淺하므로 汗法으로 풀어야 하는데 內經의 이른바 “因其輕而揚之”, “其在皮者 汗而發之”의 治療法이라 말할 수 있다.

陽明은 闔을 主하니 病이 陽明으로 들어가면 마땅히 邪氣를 攻하면서 正氣를 보호해야 하는데 內經의 이른바 “中滿者 瀉之于內”의 治法이라 말할 수 있다.

少陽은 樞를 主하니 病이 少陽으로 轉入되었을 때 發汗을 하면 邪氣가 속으로 陷入되어 壞症이 생기고 瀉下하면 正氣만이 손상되므로 오직 和法으로 陰陽과 表裏를 調和해야만 한다.

이것은 因勢利導之法으로 臨床에서 자못 깊은 의의가 있는데 그 근원을 탐구해보면 모두 經脈의 開闔樞 理論에서 나온 것이다.

(4) 開闔樞의 傷寒論에서의 응용

清代에 이르러 開闔樞의 원리를 傷寒論에 응용하여 활용한 많은 학자들이 출현하였는

38) 石壽棠, 上揭書, pp.22-23.

39) 朴一洪 外二人, 註譯黃帝內經素問, 1981, p.95.

40) 上揭書, pp.97-98.

데 대표적인 醫家로는 張志聰, 柯韻伯, 陳修園 등을 들 수 있다. 張志聰의 傷寒論宗印과 傷寒論集註, 柯韻伯의 傷寒來蘇集(傷寒論注, 傷寒論翼), 陳修園의 傷寒論淺註 등의 醫書 속에는 이에 관한 內容이 실려 있다. 柯韻伯은 傷寒論翼의 六經正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又陰陽離合論에 太陽爲開라 故仲景이 以之主表하야 而以脈浮 惡寒 頭項強痛으로 爲提綱하니 立言은 與熱病頗同이나 而立意自別하니라 陽明爲闔이라 故以之主裏하야 而以胃實로 爲提綱하니 雖有目痛鼻乾等症이나 而所主는 不在是니라 少陽爲樞며 少陰亦爲樞라 故皆主半表半裏症하니 少陽은 爲陽樞로 貴重在半表라 故以口苦目眩으로 爲提綱하야 而不及胸脇痛硬하고 少陰은 爲陰樞로 其欲寐不寐와 欲吐不吐는 亦半表半裏症이니 雖有舌乾口燥等症이나 而不入提綱하니 貴重在半裏也니라 豈惟陽明主裏하며 三陰皆主裏로대 而陰陽異位리오 故所主各不同하니 陽明은 主裏症之陽하고 陽道實 故로 以胃實은 屬陽明이오 太陰은 主裏症之陰하고 陰道虛 故로 以自利는 屬太陰이오 太陰은 爲開하고 又爲陰中之至陰 故로 主裏寒自利하고 厥陰은 爲闔하고 又爲陰中之陽 故로 主裏熱而氣逆하고 少陰은 爲陰中之樞 故로 所主或寒或熱之不同하며 或表或裏之無定하니 與少陽相似也니라”⁴¹⁾ 여기서는 三陽三陰의 開闔樞를 六經의 提綱과 서로 關連지워서 說明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傷寒論翼의 卷下에서 三陽三陰病과 開闔樞와의 關係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太陽은 主表하니 爲心君之藩籬니 猶京師之有邊關也라 風寒初感에 先入太陽之界하니 惟以得汗爲急務하야 得汗而解면 猶邊關之有備也며 必發汗而解면 是君主之令行也이니와 若發汗而汗不出과 與發汗而仍不解는 是君主之令不行也니라 夫汗은 爲心之液이오 本水之氣로 在傷寒하야 爲天時寒水之氣오 在人身하야 爲皮膚寒濕之氣오

在發汗하야 爲君主陽和之氣니 君火之陽이 內發하면 寒水之邪가 外散矣니 故로 治太陽傷寒은 以發汗으로 爲第一義라 若君火不足하면 則腎液之輸于心下者가 不能入心爲汗하며 又不能下輸膀胱하니 所以心下有水氣也라 故利水는 是治傷寒之第二義니라”⁴²⁾

“太陰陽明은 同處中州로대 而太陰은 爲開오 陽明은 爲闔也라 故로 陽明은 必以闔病으로 爲主하니 不大便은 固闔也오 不小便은 亦闔也오 不能食과 食難用飽와 初欲食反不能食은 皆闔也라 自汗盜汗은 表開而裏闔也오 反無汗은 內外皆闔也니 種種闔病은 或然或否 故로 提綱은 獨以胃實爲主라 胃實不竟은 指燥糞堅靱이오 只對下利言이니 下利는 是胃家不實矣라 故汗出解後에 胃中不和而下利者는 不稱陽明病이라 如胃中虛而不下利者는 便屬陽明이오 卽初鞭後漉하야 水穀不別이나 雖死而不下利者는 總爲陽明病也라 蓋陽明太陰은 同爲倉廩之官이로대 而所司各別하니 胃司納 故로 以陽明主實하고 脾司輸 故로 太陰主利하니 同一胃病이나 而分治如此하니 是二經所有分也니라”⁴³⁾

“少陽은 處半表半裏하야 司三焦相火之游行하니 仲景이 特揭口苦 咽乾 目眩하야 爲提綱하니 是取病機立法矣라 夫口咽目三者는 臟腑精氣之總竅로 與天地之氣로 相通者也니 不可謂之表며 又不可謂之裏니 是表之入裏며 裏之出表處니 正所謂半表半裏也라 三者能開能闔하야 開之可見하고 闔之不見하니 恰合爲樞之象이라 苦乾眩者는 蓋相火上走空竅而爲病이오 風寒雜病에 咸有之니 所以爲少陽一經總綱也라”⁴⁴⁾

“太陰은 爲開오 又陰道虛하며 太陰은 主脾所生病하고 脾主濕하며 又主輸하니 故로 提綱은 主腹滿時痛而吐利하니 皆是裏虛不固하며 濕勝外溢之症也라 脾虛則胃亦虛오 食不下者는 胃不主內也니 要知胃家不實은 便是太陰病이라”⁴⁵⁾

“少陽은 爲陽樞오 少陰은 爲陰樞라 弦爲木象이니 弦而細者는 是陽之少也오 微爲水象이니 微

41) 柯韻伯,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6, pp.162-163.

42) 上揭書, p.180.

43) 上揭書, pp.181-182.

44) 上揭書, p.186.

45) 上揭書, p.189.

而細者_는 陰之少也_니 此脈氣之相似_라 衛氣行陽則寤_{하고} 行陰則寐_{하며} 其行陰二十五度_는 常從足少陰之分_{으로} 間行臟腑_{하나니} 少陰病 則樞機不利故_로 欲寐也_니 與少陽喜嘔者_로 同_{이라} 嘔者_는 主出_{하니} 陽主外也_오 寐者_는 主入_{하니} 陰主內也_라 喜嘔_는 是不得嘔_오 欲寐_는 是不得寐_니 皆在病人意中_{하야} 得樞機之象_이 如此_라"⁴⁶⁾

"太陰厥陰_은 皆以裏症_{으로} 爲提綱_{이나} 太陰_은 爲陰中之陰而主寒 故_로 不渴_{하고} 厥陰_은 爲陰中之陽而主熱 故_로 消渴也_라 太陰_은 主濕土_{하니} 土病則氣陷下_{하고} 濕邪入胃 故_로 腹痛自利_오 厥陰_은 主相火_{하니} 火病則氣上逆_{하야} 火邪入心 故_로 心中疼熱也_라 太陰의 腹滿而吐 食不下_와 厥陰의 饑不欲食 食即吐_는 同是食不下_니 太陰則滿_{하고} 厥陰則饑_{하며} 同是一吐_니 太陰則吐食_{하고} 厥陰則吐_는 此又屬土屬木之別也_라 太陰_은 爲開_니 本自利_오 而下之_면 則開折_{하니} 胸下痞硬者_는 開折反闔也_오 厥陰_은 爲闔_{이니} 氣上逆_{으로} 而下之_면 則闔折_{하니} 利不止者_는 闔折反開也_라"⁴⁷⁾ 이상의 內容도 역시 傷寒의 三陽, 三陰의 증상을 開闔樞의 理論으로 說明하고 있다.

陳修園은 柯韻伯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開闔樞의 理論을 傷寒論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의 此數語는 爲審證施治之關鍵"⁴⁸⁾이라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그의 傷寒論淺註의 內容을 보면 六經病의 症狀機轉說明과 治法에 開闔樞의 理論을 곳곳에서 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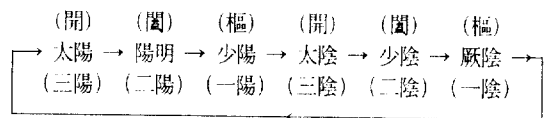
총괄해 보건대 開闔樞는 傷寒의 三陰三陽病證에서 病候를 귀납하고 病機를 해석하며, 傳變을 分析하고 예후를 판단하며, 因勢利導하는 治療法에 널리 活用할 수 있는 의의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5. 少陰爲樞 厥陰爲闔에 대한 異論

方藥中은 厥陰이 樞가 되고 少陰이 闔이 된다는 異論을 提起하였다. 이와 관련된 內

容을 아래에 소개한다. 內經 陰陽離合論에서의 開闔樞 설명은 주로 經脈의 循行部位, 路線 및 經氣의 變化, 연결의 角度로부터 출발점을 삼는다. 따라서 "厥陰爲樞"의 이유도 반드시 이 두 방면으로부터 분석되고 제기되어야만 한다. 三陰經의 走向原則을 보면 手三陰은 從藏走手_{하므로} 手三陰經의 循行起點은 胸腹部로부터 上肢內側의 겨드랑이, 팔을 거쳐 손가락 끝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의 分布를 보면 太陰經이 前에 있고 厥陰經이 中에 있고 少陰經이 後에 위치한다. 足三陰은 從足走腹_{하므로} 足三陰經은 발로부터 脛의 內側을 거쳐 上肢入腹_{하여} 胸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情況을 보면 內踝上八寸을 境界로 八寸以下에서는 厥陰在前, 太陰在中, 少陰在後가 되고, 八寸以上에서는 厥陰經과 太陰經이 서로 교차하여 太陰이 앞으로 나옴과 厥陰이 중간에 위치하게 되며 少陰은 變化없이 맨 뒤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手足三陰經의 분포로 분석해 보면 厥陰은 대체적으로 太陰과 少陰의 중간에 위치_하므로 厥陰이 樞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三陰經氣의 多少에 의해 분석해 보면 太陰은 三陰이라 부르고 少陰은 二陰이라 부르고 厥陰은 一陰이라 부른다. 그리고 厥陰은 陰이 다하고 陽이 始生하는 轉樞의 段階가 된다.



위의 그림을 보면 陽에서 陰으로 들어가고 陰에서 다시 陽으로 나오는 陰陽離合의 關係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傷寒論의 三陰三陽의 순서로써 論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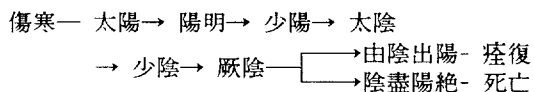
張仲景은 原文속에서 비록 명확하게 開闔

47) 上揭書, p.195.

48) 陳修園, 陳修園醫書七十二種(上),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p.618.

46) 上揭書, pp.191-192.

樞의 內容을 言及하지 않고 오직 “傳變”만 말했지만 歷代 各家의 傷寒論 主家は 開闔樞의 理論으로 解釋한 자가 매우 많다. 傷寒病의 傳變과정을 圖表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病이 厥陰에 이르면 가장 위대한 轉換段階로 陰에서 陽으로 나와 回復되거나 혹은 陰盡陽絶해서 사망하게 된다. 이상의 內容을 통해 볼 때 “厥陰爲樞”의 說이 三陰三陽의 離合關係를 더욱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듯하며 임상에서도 더욱 적절한 듯 하다⁴⁹⁾.

梁運通이 主編한 黃帝內經類析에서도 “少陰爲闔”, “厥陰爲樞”의 主張을 하고 있다. 少陰 厥陰뿐만 아니라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전체적인 그의 主張을 아래에 소개한다.

開闔樞는 六經各自의 功能과 그 相互關係에 대한 內容으로 開는 主表向外하고 疏散升發하는 功能이 있다. 太陽은 一身之表가 되고 六經之藩籬가 되어 主衛氣, 司開闔, 御外邪하는 作用이 있어 太陽爲開가 된다. 太陰은 三陰之表에 居하여 陰經之屏障이 되고 脾의 精微之氣의 輸布作用과 肺의 精氣의 宣降作用이 모두 開에 힘입고 있으므로 太陰爲開가 된다. 闔은 主裏向內하고 受納收斂內藏하는 의미가 있다. 陽明胃는 倉廩之官, 水穀之海가 되어 受納을 관장하고 또 陽明은 中土에 居하여 만물의 氣의치가 되므로 陽明爲闔이 된다. 少陰心腎은 藏精舍神하여 수렴하고 封藏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宣泄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少陰爲樞”는 의당 “少陰爲闔”이 되어야 한다.

樞는 居中하여 出入之機를 주관한다는 의미가 있다. 少陽은 太陽과 陽明의 사이에 居하여 半表半裏를 주장하며 出入의 樞機가 되므로 “少陽爲樞”가 된다. 厥陰은 陰盡陽生하는 단계로 陰陽終始를 交通하는 樞機作用이

있으므로 厥陰爲闔은 厥陰爲樞가 되어야 한다⁵⁰⁾.

이상의 內容말고도 三陰三陽의 配合관계로도 少陰爲闔, 厥陰爲樞를 說明할 수 있다. 陽明의 闔은 太陰의 開와 서로 만나 開闔의 關係를 이루듯이 太陽의 開는 少陰의 闔을 만나야만 開闔의 關係를 이룬다. 그리고 厥陰과 少陽이 또한 表裏關係를 이루니 모두 樞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經氣의 多少로 분석하더라도 厥陰은 陰盡陽生하는 轉樞가 되므로 厥陰爲樞가 되며 六經의 傳變次序로 보더라도 少陽은 傳裏하기도 하고 出表하기도 하며 厥陰은 능히 入陰出陽하니 모두 樞紐가 된다.

病理現象으로 보더라도 少陽의 寒熱往來와 厥陰의 上熱下寒의 機轉은 비슷한 곳이 있으므로 厥陰이 樞가 될 수가 있다. 또 陰陽類論에서도 一陰이 獨使가 된다하였고, 張介賓은 注에서 “使者는 交通終始之謂니 陰盡陽生에 惟厥陰主之故로 爲獨使라” 한다 함을 앞에서 言及한 적이 있다. 이 內容으로 보더라도 厥陰은 三陰의 樞일 뿐만 아니라 六經의 樞가 되는 일면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少陰으로 樞를 삼아 說明한 사람이 적지 않으므로 內經의 原文이 꼭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기능 상으로도 少陰은 行血布陽하는 中樞가 되고 더욱이 素問의 皮部論에서 少陰이 樞儒가 된다고 하였으니 少陰爲樞의 內容을 전면 부정만은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III. 結 論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關한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開闔樞는 黃帝內經의 素問과 靈樞에 처음 소개되어 있으며 素問의 陰陽離合論에서

49) 王琦等,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影印, 1983, pp.41-42.

50) 梁運通,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136.

는 開闔樞의 생리적인 특징을, 靈樞의 根結篇은 病理的인 특징과 치법을 각각 기술하고 있다.

2.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는 三陰三陽 經脈의 협조통일과 각각의 직능 및 이들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힌 內容이다.

3. 開闔樞의 開는 太素에 關으로 되어 있고 靈樞 根結의 “折關敗樞開闔”의 문장과 素問 皮膚論의 “太陽之陽 名曰關樞”, “太陰之陰 名曰關蟄”에 의거 關이 확실히 옳으므로 開闔樞는 關闔樞의 오류이다.

4. 開闔樞의 關은 문빗장(門栓, 門關), 闔은 문작(門闔, 門扇, 門扉, 門板), 樞는 지도리(門樞, 門軸)의 뜻으로 三陽經脈은 外門이 되고 三陰經脈은 內門이 되어 外部의 邪氣가 人體內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體內의 精氣가 外部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호하는 作用을 한다.

5. 開闔樞의 생리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太陽은 在表하여 陽氣를 敷暢하고 陽明은 在裏하여 陽氣를 受納하고 少陽은 表裏之間하여 陽氣를 轉輸하는 作用이 있으며, 太陰은 陰分之表에 居하여 陰氣를 敷布하고 厥陰은 陰分之裏에 居하여 收納絶陰之氣하고 少陰은 陰分之中에 居하여 可出可納한다.

6. 太陽의 關을 皮膚에, 陽明의 闔을 肌肉에, 少陽의 樞를 筋에 配合시키고, 太陰의 關을 穀氣의 運化에, 厥陰의 闔을 神氣의 畜藏에, 少陰의 樞를 血氣의 出入과 聯關시킨 것은 開闔樞의 理解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라 사료된다.

7. 開闔樞의 病理的인 특징을 살펴보면 太陽은 六經의 울타리가 되어 外邪의 침입을

처음으로 받고, 陽明은 裏를 주관하여 胃家實의 증상이 나타나며, 少陽은 半表半裏에 위치하여 寒熱往來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三陰의 病機도 開闔樞의 각기 다른 생리적 특징에 의해 다른 病理변화와 症候가 나타난다.

8. 開闔樞의 理論은 질병의 傳變, 예후 등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되며, 因勢利導하는 治療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다.

9. 張志聰, 柯韻伯, 陳修園 등은 開闔樞의 理論을 傷寒論의 審證施治의 大關鍵으로 크게 중시하고 있다.

10. 三陰, 三陽 經脈 流注의 특징, 六經病의 傳變機轉, 三陰三陽의 相合關係, 생리적인 특징 및 病理현상 등으로부터 少陰이 闔이 되고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少陰이 樞가 되고 厥陰이 關이 된다는 理論도 타당한 一面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研究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1. 吳崑, 石壽棠 및 후대의 醫家들은 開闔樞의 대상을 三陰三陽 經脈이 아닌 臟腑로 說明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靈樞 根結의 三陰의 開闔樞가 병들었을 때의 內容을 살펴보면 수궁할 수 있는 일면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內容으로 볼 때 三陰三陽의 開闔樞 이론은 韓醫學의 生理, 病理, 診斷, 治療 등의 方面에 널리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바탕을 더욱 진보된 研究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朴一洪 外二人, 註譯黃帝內經素問, 1981.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柯韻伯,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6.
4. 郭霽春 主篇,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5. 丹波元簡, 素問識(皇漢醫學叢書卷一), 서울, 廣法社, 1975.
6.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서울, 一中社.
7. 石壽棠, 醫原, 江蘇科技出版社, 1983.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9. 梁運通,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10. 吳崑, 吳注黃帝內經素問, 서울, 金泳出版社, 1980.
11. 王琦 等,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12. 李今庸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13. 張介賓, 類經, 서울, 서원당, 1977.
14. 張隱庵, 馬蒔, 張馬合註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75.
15. 陳修園, 陳修園醫書七十二種,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1978.